

Deloitte.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 2024 연감 **한글판**

Sam Samuel Duncan Padgett 외 3인

May, 2024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리더 메시지	03
소개의 글	04
조사결과 요약	05
미래 전망	07
주요 시장 통계	11
1) 바이아웃	
2) 바이아웃 투자회수	
3) 드라이파우더 및 자금조달	
부록: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역별 상위 10대 딜 현황	23

리더메시지



남상욱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딜(Deal) 부문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년간의 혼란 이후 2023년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수합병(M&A)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여건은 각종 해결과제와 불확실성을 야기했고, 경제 성장 둔화, 부채 비용 증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태평양 사모펀드 (PE)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2023년은 아시아 태평양 PE가 부단히 성장한 해로 기억됩니다.

2023년은 사모펀드 업계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겼습니다. 금리 상승과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가 결합되어 기준 수익률(hurdle rate) 수준을 고수했던 재무적 매수자의 잠재 수익률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융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매수자들은 잠재적 진입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가치평가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많은 딜 프로세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PE는 자산 매각에 보다 유연하지만 느린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다양한 유형의 딜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사모펀드 시장 동향과 2024년 전망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이번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팀의 2024 연감 보고서를 통해 올해 변화하는 사모펀드 시장 환경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를 얻기 바랍니다.



소개의 글

사모펀드(PE)는 전 세계 경제의 건전성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Asia Pacific) 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태 지역 PE의 드라이파우더는 세계 전체의 23.7%를 차지할 정도로 큰 반면,¹ 지역 PE 거래는 전 세계 거래의 15.2% 비중에 불과할 정도로² 지역 PE 규모 대비 드라이파우더의 불균형이 매우 크다. 이는 아태 지역에서 PE 자본 전개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딜로이트는 PE 산업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고 있으며, 많은 시장 선두업체에 PE 소유권 주기 전반(딜 개시 및 실사, 운영 컨설팅부터 펀드 평가 및 감사)에 걸쳐 서비스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창출 자문사라는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사는 업계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에 관한 고유한 통찰력과 전망을 도출하고, 나아가 시장의 동향과 성장 경로에 대한 분석과 논평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 2024 연감”의 목표는 2023년 아태 지역의 PE 산업 동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그림을 제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주요 테마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2024년에 예상되는 트렌드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PE 시장의 흐름을 통해 올 해 업계의 활동을 주도할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1. 프레퀀(Preqin)

2. 머저마켓(Mergermarket)



조사 결과 요약

2023년은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 산업 성장의 해

투자자들은 2023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수년간의 혼란이 지나고 고대하던 시장이 정상화 되기를 바랐지만,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실제로 성장 둔화, 부채 비용 상승, 자금조달난 등으로 인해 2023년은 아시아 태평양 PE 시대의 종언이라고 낙인 찍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2023년은 아시아 태평양 PE가 성장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최고의 전문가를 제외한 모두는 낯선 환경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성숙한 서구 시장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PE 바이아웃 거래가 일본과 인도와 같이 이전에는 거부되던 곳까지 더 넓은 시장에서 수용되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대상 선별 기준, 강력한 사업 계획 그리고 운영 개선에 집중하여 궁극적으로 매출 성장과 시장 출시 속도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주요 인사이트



거래 가치 '현상유지'에 성공

2023년은 PR 업계에게는 고난의 해였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실패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았으며, 거래 규모가 감소(바이아웃 투자 건수가 2022년 1,061건에서 2023년 947건으로 감소)했다. 딜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리고 투자회수(2022년 630억 달러에서 2023년 600억 달러로 감소)도 계속 어려웠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거래 가치는 실질적인 현상유지에 성공(2022년 1,090억 달러에서 2023년 1,19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상당 부분은 포트폴리오 관리가 차지했다.



기준 수익률 핸디캡이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

펀드 운영 성과는 회복되었지만, PE 투자회수 밸류에이션은 그렇지 않았다. 금리가 상승하고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목표 기준 수익률이 변하지 않은 재무적 매수자의 잠재 수익률을 잠식했다. 결국 높은 자금 조달 비용은 매수자가 잠재적 진입 가격을 낮추게 했고, 이는 밸류에이션에 기준 수익률 핸디캡을 추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비영업 프로세스를 통한 영업 프로세스의 등장

다수의 딜 프로세스가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PE 펀드는 프로세스 실패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부정적인 평판을 피하기 위해 자산 매각 및 다른 종류의 각종 딜에 대해 더 온건하지만 더욱 느린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격만 중시하지 않는 전략적 매도자와 딜 완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략적 매수자 양측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한편, PE 매수자는 덜 엄격한 프로세스 타임라인을 활용하여 이익연계지불(earn-out)과 같은 부분 딜, 기존 포트폴리오와 시너지, 차입형/주식형 혼합 솔루션 등 매도자 측과 지속되는 호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구조화를 모색할 수 있다.



자금조달 시장의 정체: 미래 투자 기회

자금조달 시장의 '교착 상태'로 인해 각종 전략(바이아웃, VC, 세컨더리, 펀드오브펀드, 특수상황)에 걸쳐 아태 PE 펀드의 청산 펀드 수 (385개)와 드라이파우더 모금액(632억 달러)이 10년 만에 최저치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이러한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한정된 규모인 바이아웃 펀드의 빈티지가 더 늘어난다. 이는 결국 펀드 운용자(GP)가 2년, 3년 또는 4년 내에 오래된 빈티지 펀드에 대해 투자금 회수(exit) 모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투자 모드에 있는 펀드 간 딜 경쟁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다.



분산 전략, 그러나 글로벌 균형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중국 투자

중국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최근 기준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중국에 대한 PE 투자자들의 시각과 전략은 다양하고 다각화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의 자산군별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PE 펀드에서 출자자(LP)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분모 효과가 지리적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LP를 중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론이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으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중국에 자금을 투입하기에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투자자들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도적인 펀드 운용과 LP 유동성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경로 활용

거래량이 적고 만족스러운 가치평가 수준으로 투자회수에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PE 펀드는 운영 개선을 통한 가치 창출과 배당 자금 확보를 위한 보다 모호한 유동성 전략인 컨티뉴에이션 펀드, 부분 엑시트, 그리고 세컨더리펀드나 재간접펀드로의 스트립 매각 또는 포트폴리오 매각 등의 경로를 활용하는 데 갈수록 집중하고 있다.

시장의 거래량 침체는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고 실제로도 그럴 것이며, 이미 회복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금리는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며, 거래가 침체된 지 1년이 넘는 상황에서 드라이파우더가 축적되고 빈티지가 늘어나는 자산들로 인해 GP가 거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신규 및 기존 투자자들은 PE 하우스가 충분한 드라이파우더와 연식이 오래된 자산이 가득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추가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낮다. 올해도 완료해야 할 거래와 사용해야 할 드라이파우더가 쌓여 있고 여전히 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 노력과 양자 간 협상 그리고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된다.



미래 전망

2024년 PE 시장의 주요 테마들

2023년 핵심 트렌드 분석에 기반, 2024년 PE시장의 주요 테마 파악하기

시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은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이정표가 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진화하는 PE의 세계에서는 그저 또다른 하루이기도 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목격한 많은 변화는 다음 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시장 인사이트에서 확인한 힘과 흐름은 대부분 계속 이어질 것이다. PE 펀드가 분기 보고서 중심의 공모펀드 시장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펀드 라이프사이클의 압박에 대응하여 자본을 배치하고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지난 한 해를 자세히 들여다 본 만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은 우리의 초점을 넓히고 올해 부상하거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PE 시장의 활동을 주도할 테마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딜 모멘텀: 거래 속도는 서서히 증가하며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강화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모멘텀을 바꿀 만한 뚜렷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초반 시장의 추세는 지난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와 일본과 같은 시장의 호조는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개선 요청과 같은 강력한 딜 수요와 자원에 힘입어 계속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호주와 같이 성장세가 더딘 시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GP는 고금리 환경과 같은 '뉴노멀'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착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이로 인해 딜 참가자들이 더 낮은 금리가 올 때까지 버티는 식으로 기준 수익률 핸디캡을 완화하려고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딜 메이킹이 지연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다수의 분쟁과 해운 항로에 대한 위협, 중요한 선거 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여건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주요 촉매제가 없는 한 GP는 투자회수 개시에 대해 '관망하는'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에는 자금 조달과 지정학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리파이낸싱, LP의 분배(DPI) 요구, 펀드의 연식 노후화 등 외부 압력이 겹치면서 M&A 거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할 것이다.

맞춤형 딜: 맞춤형 거래와 고유한 딜 구조에 대한 강조가 강화된다

GP가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개시하기를 주저하면서 여전히 가치평가 기대치를 낮추기를 꺼리기 때문에, 세컨더리 딜은 계속해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단순 매각과 달리 유동성 옵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절차를 중단하고 더 많은 실사를 요구하며 더 많은 포인트를 협상해야 하는 프로세스와 같은 창의적인 구조화의 여지가 확대될 것이다. 노련한 매수자는 현재의 시장 여건을 활용하여 새로운 구조, 실패한 프로세스의 재접근 혹은 기업의 사업부 분할매각(carve-out)을 위한 다국적대기업(MNC)에 대한 접근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독특한 상황을 활용할 것이다. GP는 소수지분 매입, 전환사채 혹은 구조화상품 투자 그리고 나아가 두 개 이상의 펀드 간 포트폴리오 사업 결합 등을 더 활용할 것이다.

PE 펀드는 포트폴리오 자산 외에도 기업 승계와 창업자 은퇴를 딜 소스로 삼을 것이다. PE는 또한 기업 지배구조 개혁, 사업 포트폴리오 합리화, 자본 효율성에 대한 압박,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공급망 트렌드 변화, MNC의 글로벌 입지에 대한 전략 변경 등 다양한 전개를 통해 등장하는 딜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딜로이트의 2024 글로벌 기업 매각 서베이 결과 응답자의 73%는 향후 12~28개월 내에 최소 3건의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³
- 중국에서는 후계자가 없는 고령의 창업자들이 현재와 같은 침체된 기업공개(IPO) 시장 여건 속에서도 계속 가족 기업을 위해 PE 투자회수를 활용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PE 바이아웃 및 이들의 운영 개선을 통한 가치 증대 방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승계 거래, 상장기업에서 비상장기업으로 전환 및 사업부 분할매각이 증가할 것이다.

운영에 대한 집중: PE는 운영 개선, 특히 현금 관리와 볼트온 투자를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PE는 운영 팀의 규모를 키우고, 포트폴리오 내 기업 뿐 아니라 앞으로 투자 사례의 더욱 많은 부분을 운영 개선에 집중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도자는 운영 상의 변화의 개요를 그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매수자가 인수한 뒤 가치평가 간극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매수자는 투자 의사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운영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더 많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로 인해 거래의 일정이 연장될 것이다.

또한 일부 GP가 포트폴리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좀더 광범위한 생성형 AI 트렌드와 융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챗봇, 메시징 앱, 음성 비서를 활용하여 '대화형 상거래'를 구축하거나 영업 담당자의 통화 효과를 분석하고, 고객의 피드백을 보다 신속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다.

3. Deloitte 2024 Global Corporate Divestiture Survey

2024년 PE 시장의 주도 요인들

규제 강화: 규칙이 바뀌고 있다

단기적인 우려 사항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P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부속합의서, 공동투자 계약, 딜 관련 비용 청구 등 자금조달 수수료와 비용에 대한 공개 요건이 미흡한 부분이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왓츠앱(WhatsApp)과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기록 보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은행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뒤 자산운용사로도 관심을 쏟았는데, 운영 방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시행되는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또한 대형 바이아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투자회수 시점에 기업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펀드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게다가 블랙스톤(Blackstone)과 EQT와 같은 개인 투자자 펀드의 출시는 PE와 그 운영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ESG: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ESG를 놓고 떠들썩하던 시기는 지나겠지만, 그렇다고 ESG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그와 반대이다. 딜로이트가 202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100명의 펀드매니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LP 투자자의 87%가 지속가능한 투자/ESG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⁴

오히려 ESG가 모든 딜에서 평범한 일상업무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소란스러움이 사라질 것이다. 기업은 이전만큼 ESG 인증 자격을 내세우지 않겠지만, ESG는 여전히 딜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로 존재할 것이다.

주된 변화는 ESG 관점 혹은 '스토리'(매도자 측 윈도드레싱)를 홍보하는 것보다 실제 ESG 실사 및 계획을 중시하는 쪽으로 강조점이 바뀌는 것이다. 당연히 '있으면 좋은 것'이 평범하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ESG 스토리가 부실하거나 없는 기업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서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LP가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LP가 협상력을 가진 쪽이며 이들의 ESG 우선순위가 GP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PE는 운영의 관점에서 ESG 성과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외에도 전략적 입장에서 ESG의 순풍 효과와 에너지 전환과 같은 트렌드가 어떻게 새로운 비즈니스와 부문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이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바이아웃 및 인프라 펀드가 일차적인 전략적 초점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제품 및 서비스 공급(예를 들어 기후기술, 에너지 소프트/하드웨어, 지속가능한 패키징 등) 이면서 우수한 상업적 투자수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인수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4. Deloitte - Adapting ESG in private equity markets for clarity and value

'경기 침체 빈티지' 기회: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불확실성 증가, 자금조달 비용 증가, 투자 심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전반적인 딜 경쟁이 위축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이다. 2023년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최고재무책임자(CFO) 서베이⁵에 따르면, 57%에 이르는 지역 CFO가 자신이 속한 기업이 당면한 상위 3대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꼽았으며, 당연히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위험'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매수자들은 이러한 준경기침체 여건을 '경기 침체 빈티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다.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어려운 시기에 구축한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긍정적인 상황이 도래할 때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실사를 수행하고 확신을 얻고 가치평가 간극을 해소하는 매수자는 장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현재와 같은 정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Deloitte - Asia Pacific CFO Survey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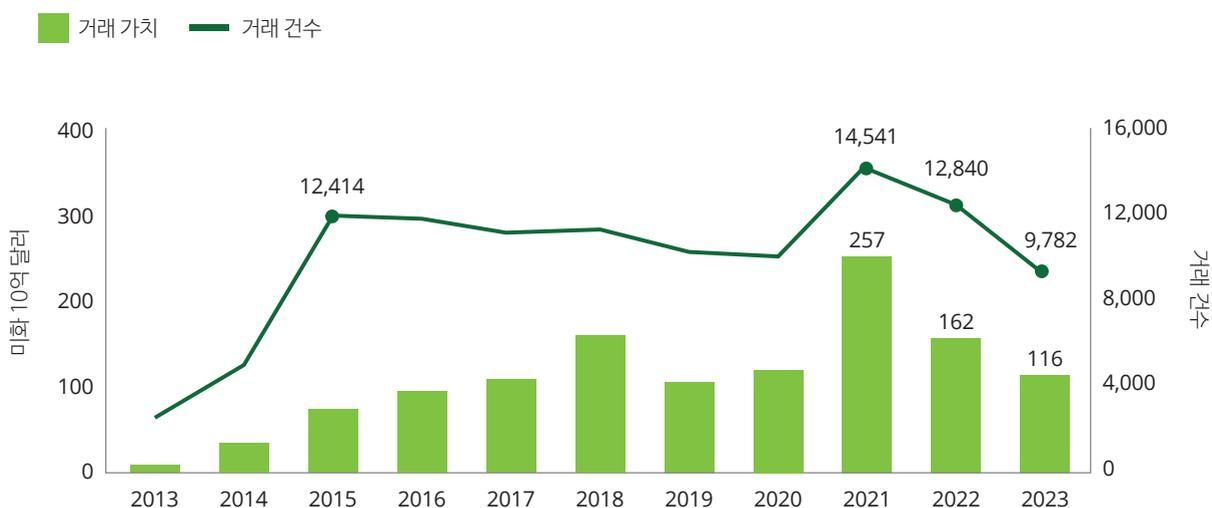
주요 시장 통계

바이아웃 투자

PE 투자 - 전반적인 동향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 덕분에 시장이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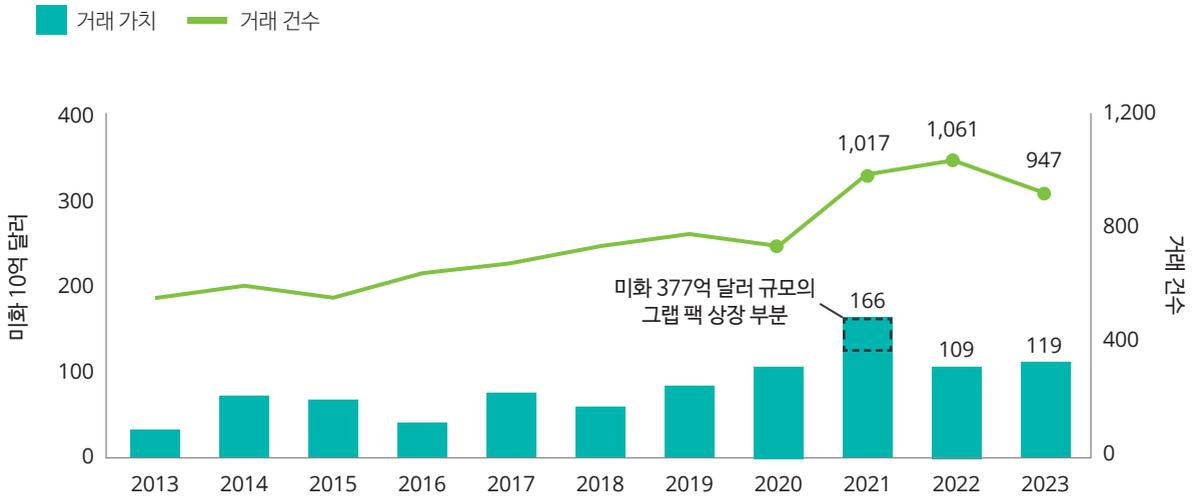
그림 1. 벤처 투자(2013~2023년)



2023년 아시아 태평양 PE 펀드 투자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붕괴, 소비자 신뢰도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 자본 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거래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다:

- 벤처 캐피탈 투자는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3.8%, 28.6% 감소하여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반면 바이아웃은 거래 건수와 금액 모두 2021년(377억 달러 규모의 그랩(Grab) 스펙 상장 제외)과 2022년 수준에 근접하며 회복탄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바이아웃 투자(2013~2023년)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바이아웃 투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상위 10개 PE 바이아웃 투자 중 5개가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라:

- ☑ PAG와 광범위한 컨소시엄이 미화 9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한 주하이완다상관(珠海万口商管)은 2023년 말까지 IPO에 실패한 후 프리 IPO 투자자와의 이전 거래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 ☑ 트리코(Tricor)와 비스트라(Vistra)의 합병을 통해 EQT는 펀드 VIII의 투자를 통해 펀드 V 투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
- ☑ 싱가포르투자청(GIC)의 워크 휴먼 인텔리전스(Works Human Intelligence)에 대한 투자를 통해 베인(Bain)은 자신이 보유한 지배 지분을 공동경영 공동소유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포지션을 매각하고 나머지는 베인의 가장 최근 펀드로 이전했다.

PE 투자 - 지역별 동향

중국이 바이아웃 1위 시장 자리를 내준다.

거시경제 역풍의 영향은 지역 내 개별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 다른 시장에서는 활동이 감소한 반면, 거래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가장 활발한 PE 투자 시장인 일본에서는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일본의 바이아웃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은 각각 전년 대비 4.6% 증가한 252건, 48.5% 증가한 388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 ☑ 마찬가지로 남아시아(주로 인도)도 2023년에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이 각각 15.4% 증가한 180건, 66.1% 증가한 185억 달러로 성장세를 보였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거래 금액이 2022년의 절반 수준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2022년에 대규모 거래가 있었던 영향도 크다.

- 호주에서 2022년에 가장 큰 거래는 블랙스톤(Blackston)의 크라운 리조트(Crwon Resorts) 인수로 미화 66억 달러(89억 호주 달러)였으며, 2023년에 가장 큰 거래는 블랙스톤의 에너지 엑셈플라(Energy Exempla) 인수로 미화 11억 달러(16억 호주 달러)에 달했다.

☑ 한편, 거래 금액 기준으로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바이아웃 시장이었던 중국은 다수의 대형 포트폴리오 관리 거래(완다, 친데이터, 비스트라)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내려앉았다.

- 이 세 가지 거래 금액(149억 달러)만 제외하면 중국의 거래 금액은 인도보다 적고 4위인 한국에 근접하는 정도이다.

그림 3. 바이아웃 투자 상위 지역

거래 규모별			거래 금액 기준(US \$B)		
	2023년(순위)	2022년(순위)		2023년(순위)	2022년(순위)
일본	252(#1)	241(#2)	일본	252(#1)	241(#2)
남아시아	180(#2)	156(#4)	남아시아	180(#2)	156(#4)
중국	156(#3)	271(#1)	중국	156(#3)	271(#1)
호주 및 뉴질랜드	149(#4)	205(#3)	호주 및 뉴질랜드	149(#4)	205(#3)
대한민국	119(#5)	95(#5)	대한민국	119(#5)	95(#5)
동남아시아	88(#6)	92(#6)	동남아시아	88(#6)	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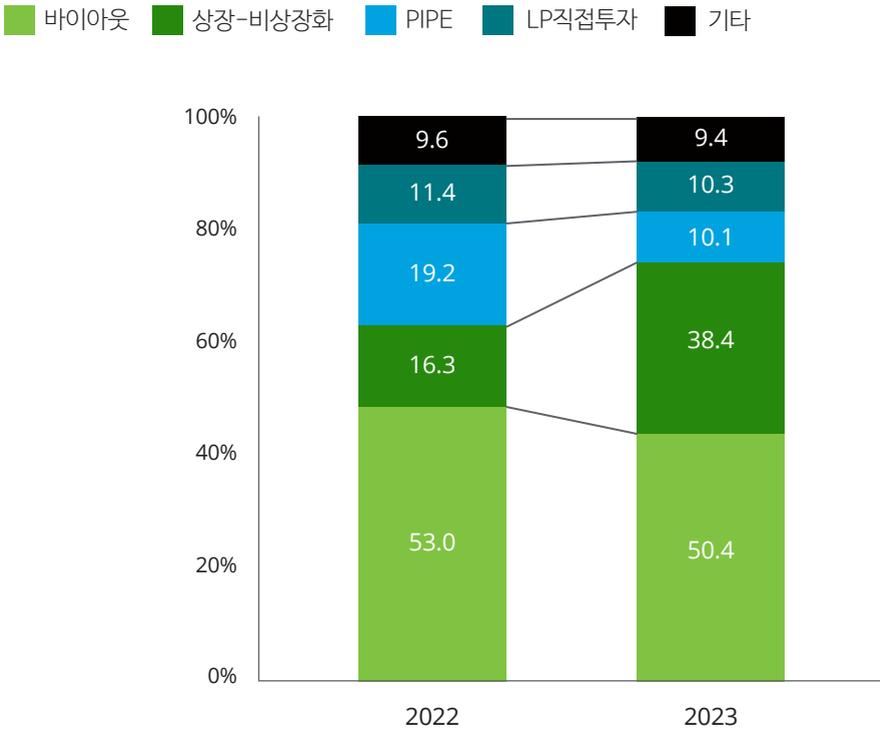
출처: 딜로이트 분석



일본이 주도하는 상장기업의 비상장화 투자 시장의 성장

- ✔ 2023년 상장기업의 비상장화(public-to-private) 투자는 거래 건수와 금액 면에서 모두 증가해, 거의 보합에 머문 다른 범주 거래와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 ✔ 2023년에는 총 384억 달러 규모의 25건의 비상장화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는 2022년 17건, 163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 ✔ 일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규정 및 인수 가이드라인의 갱신, 투자자 행동주의의 증가, 도쿄증권거래소의 저 PBR(price-to-book) 기업에 대한 조사, 풍부한 저비용 자금 조달이 상장기업의 비상장화에 대한 PE 펀드의 바리아웃 기회가 증가했다.
 - 일본은 2023년에 303억 달러의 상장-비상장화 거래 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아태 지역 전체 상장-비상장화 거래 금액 중 79%를 차지했다.
 - 일본 상장-비상장화 거래는 또한 2023년 상위 10대 PE 투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그림 4. 거래 금액 기준 바이아웃 거래 유형(미화 10억 달러)



PE투자-섹터별 동향

TMT 및 소비자 부문이 계속 바이아웃 거래 선택을 많이 했다.

- ☑ TMT는 총 192억 달러 규모의 252건의 PE 바이아웃 거래로 이 분야의 거래 활동을 주도했으며, 2023년 아태 지역의 상위 10대 거래 중 두 건이 TMT 거래였다.
 - 일본은 2023년에 303억 달러의 상장-비상장화 거래 금액을 기록했으며, 이는 아태 지역 전체 상장-비상장화 거래 금액 중 79%를 차지했다.
 - 소프트웨어/SaaS는 2023년에 총 87억 달러 규모의 116건의 거래로 최고 거래 순위를 기록한 하위 부문으로, 워크휴먼 인텔리전스(GIC, 베인), 푸시페이Pushpay(BGH, 식스스트리트) 등 전 지역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TMT 부문의 거래가 2022년 57건, 51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36건, 47억 달러 규모로 활동이 감소했다.
 - 중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소비자 부문 거래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호주의 거래액 급감은 2022년 크라운 리조트(블랙스톤, 66억 달러)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 ☑ 소비자 부문이 2023년에 두 번째로 가장 활발한 바이아웃 투자 순위를 기록했지만, 거래는 2022년 246건에 거래 금액 295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거래 건수 202건에 거래 금액 265억 달러로 감소했다.

- ☑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의 거래는 2022년 77건, 30억 달러 규모에서 2023년 99건, 총 142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며 2023년에 또 하나의 유망한 분야였다.

- ☑ 산업 부문은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거래 활동이 감소했으며, 2023년 아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 PE 투자 기록인 JIP의 도시바 사모 투자(148억 달러)를 제외하면 128억 달러 규모에 그친다.
 - 특히 데이터 센터, 기업 서비스, 보안은 올해 투자 상위 10위 안에 각각 포함된 하위 분야로 주목을 받았다.
 - 베인의 친데이터 그룹 인수
 - EQT 프라이빗 캐피탈 아시아의 비스트라와 트리코 합병
 - EQT 밸류 애디드 인프라스트럭처의 SK실더스 인수

그림 6. 2023년 상위 10대 바이아웃 투자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및/또는 부분 엑시트와 관련된 거래

# 대상 회사	지역	거래 날짜	거래 유형	투자자	판매자	산업	거래규모 (미화)
#1 도시바	일본	2023년 9월	P2P	일본산업파트너스 (JIP)		산업재	\$14.8B
#2 주하이완다 상관	중국	2023년 12월	바이아웃	PAG, 트러스타, 텐센트투자, 샤오미그룹, 선정국가가든벤처캐피탈	다렌 완다상관	인프라&부동산	\$9.3B
#3 JSR	일본	2023년 6월	P2P	JIC캐피탈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6.6B
#4 신코전기공업	일본	2023년 12월	P2P	다이잇폰인쇄 주도 컨소시엄, 미쓰이화학, JIC캐피탈	후지쯔	하드웨어	\$4.9B
#5 친데이터 그룹	중국	2023년 8월	P2P	Bain		비즈니스 서비스	\$3.2B
#6 COFCO 풀린멘	중국	2023년 2월	성장	CCT펀드매니지먼트, CIC, Affirma, 중국국가사 회보장기금, 중국인수보험 자산관리, 중국투자공사, 테 마섹, 코스코해운(Cosco Shipping), 호푸(Hopu)		F&B	\$3.1B
#7 WHI(Works Human Intelligence)	일본	2023년 3월	바이아웃	GIC	베인캐피탈	소프트웨어	\$2.6B
#8 비스트라 그룹	홍콩 특별행정구	2023년 1월	추가, 합병	트리코서비스(EQT의 포트폴리오 회사), EQT, PSP투자)	EQT	비즈니스 서비스	\$4.9B
#9 SK실더스	대한민국	2023년 3월	바이아웃	EQT	SK스퀘어, 케이스톤 파트너스, 맥쿼리PE 코리아, 대 신PE	비즈니스 서비스	\$2.48B
#10 매니팰헬스 엔터프라이즈	인도	2023년 4월	바이아웃	TPG, 테마섹 홀딩스	TPG, 인도투자 인프라펀드 (NIIF)	헬스케어 공급자	\$2.0B

출처: 딜로이트 분석

바이아웃 투자회수

IPO가 줄어들면서 투자회수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였다.

- 2023년에 투자회수 규모는 총 329건에 6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균 투자회수 금액은 25% 감소한 1억 8,24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 총 투자회수 거래 금액은 2022년(631억 달러)과 비슷했지만, 2022년 금액에서 217억 달러 규모의 호주 애프터 페이 (Afterpay) 거래를 제외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 투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투자회수 거래는 2023년 상위 10대 투자회수 기록 중 4개(잉더가스, 워크휴먼인텔리전스, 비스트라, 매니팰헬스)를 포함한 다수의 포트폴리오 관리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총 142억 달러 규모이다.
- 2023년 가장 일반적인 투자회수 경로는 전략적 구매자에게 매각(트레이드 세일)과 다른 펀드에 매각(세컨더리 바이아웃)이었으며, 2023년 총 거래 금액 중 각각 39%와 38%를 차지했다.
- 2023년 아태 지역의 IPO 수익은 33% 감소하여, 전체 PE 투자회수 중 1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는 앞선 5개년 동안 평균 22%에 비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 특히, 2023년 아태 지역의 상위 10대 PE 투자회수 중 IPO는 단 한 건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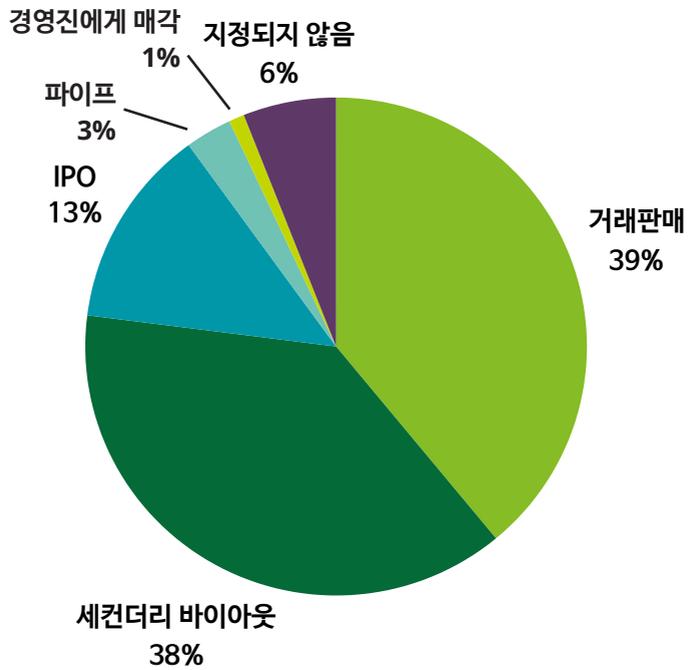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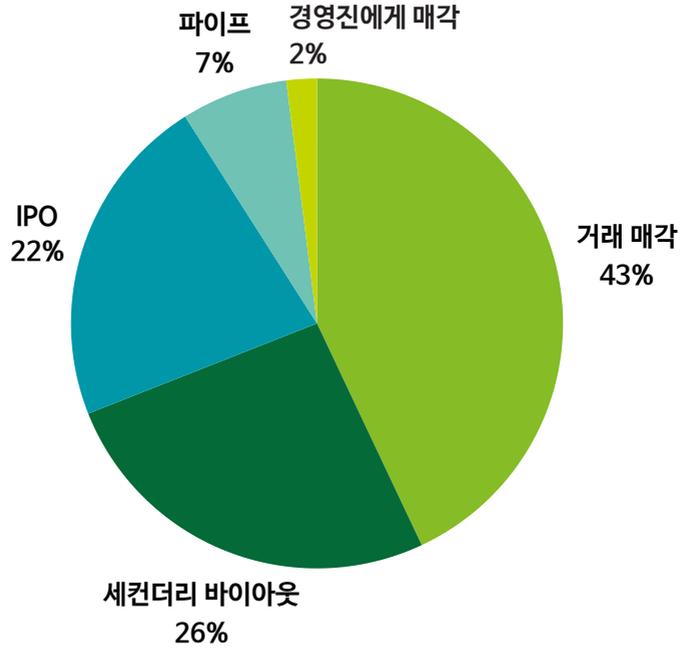
그림 7. 아시아 태평양 사모펀드 투자회수*, 2018-2023년



출처: 딜로이트 분석

*참고: 사모대출, 부동산 및 인프라 거래는 제외

그림 8. 아시아 태평양 사모펀드 투자회수*, 2023년 대비 5년 평균 딜 금액 기준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9. 2023년 상위 10대 투자회수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및/또는 부분 엑시트와 관련된 거래

#	Target 회사	지역	거래일	판매자	투자자	회수유형	산업	거래규모 (미화)
#1	저장인더 홀딩그룹	중국	2023년 5월	에어파워 테크놀로지스 (PAG의 포트폴리오 회사)	항저우 정부소유 자본 투자관리회사	전략 매각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7.2B
#2	WHI(Works Human Intelligence)	일본	2023년 3월	베인	GIC	펀드 매각	소프트웨어	\$2.6B
#3	비스트라 그룹	홍콩 특별행정구	2023년 1월	EQT	트리코서비스(EQT의 포트폴리오 회사), EQT, PSP투자)	펀드 매각	비즈니스 서비스	\$2.4B
#4	SK월더스	대한민국	2023년 3월	SK스퀘어, 케이 스톤파트너스, 맥쿼리PE코리아, 대신PE	EQT	펀드 매각	비즈니스 서비스	\$2.4B
#5	니치 (니치이카칸)	일본	2023년 11월	베인	일본생명보험	전략 매각	헬스케어	\$2.1B
#6	매니팔 헬스케어	인도	2023년 4월	TPG, 인도투자 인프라펀드	TPG, 테마섹 홀딩스	펀드 매각	헬스케어	\$2.0B
#7	맥도날드 중국 및 홍콩 매장	중국	2023년 11월	칼라일 그룹	맥도날드 주식회사	전략 매각	호스피탈리티 & 레저	\$1.8B
#8	일본풍력 개발	일본	2023년 12월	베인	인프로니어 홀딩스	전략 매각	에너지 & 유틸리티	\$1.5B
#9	CMS 인포시스템즈	인도	2023년 8월	EQT	PSP인베스트먼트, 아디티아비리아선라이프, 뮤추얼펀드, 골드만 삭스, MIT, ADIA, ICICI 르덴셜M	전략 매각	금융	\$1.3B
#10	소고메디컬 그룹	일본	2023년 12월	CVC	폴라리스 캐피탈	펀드 매각	헬스케어	\$1.2B

출처: 딜로이트 분석

드라이파우더 및 자금조달

자금조달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수준 달성

- ✔ 지난 10년간 아태 지역 PE의 드라이파우더와 모든 자산군에 걸친 운용 자산은 각각 344%, 385% 증가하여 2023년에 사상 최고치인 639억 달러에 도달했다.
 - 이는 전 세계 PE 드라이파우더 내에서 23.7% 비중을 차지한다.
- ✔ 그러나 드라이파우더의 증가는 단순히 펀드 모금의 결과만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아태 지역의 자산군 전반에 걸친 사모펀드 모금액은 청산한 펀드 수와 총 모금액 측면에서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에 청산한 펀드 수는 2013년 이후 가장 낮으며, 펀드 조성 금액은 10년 만에 최저치였다.

그림 10. 아시아태평양 PE 드라이펀드(2013~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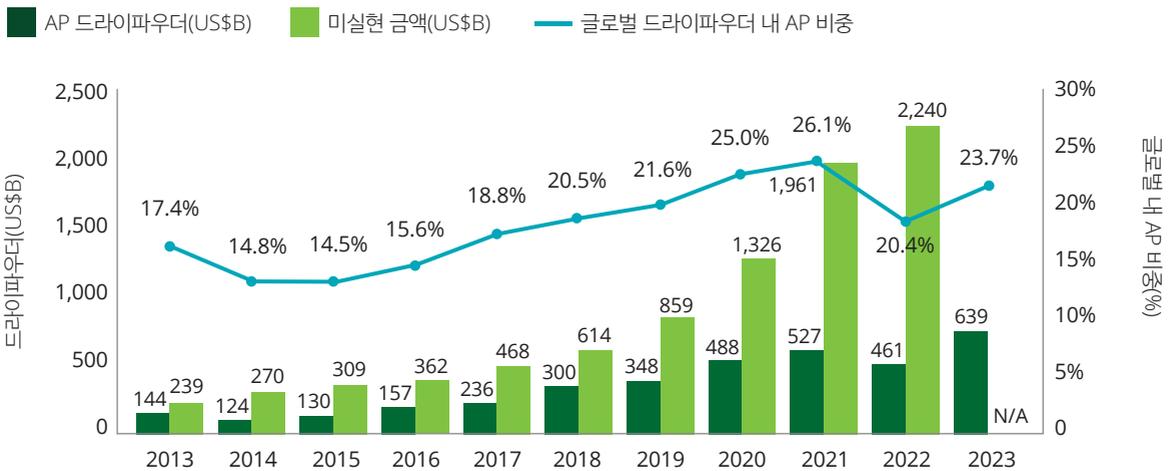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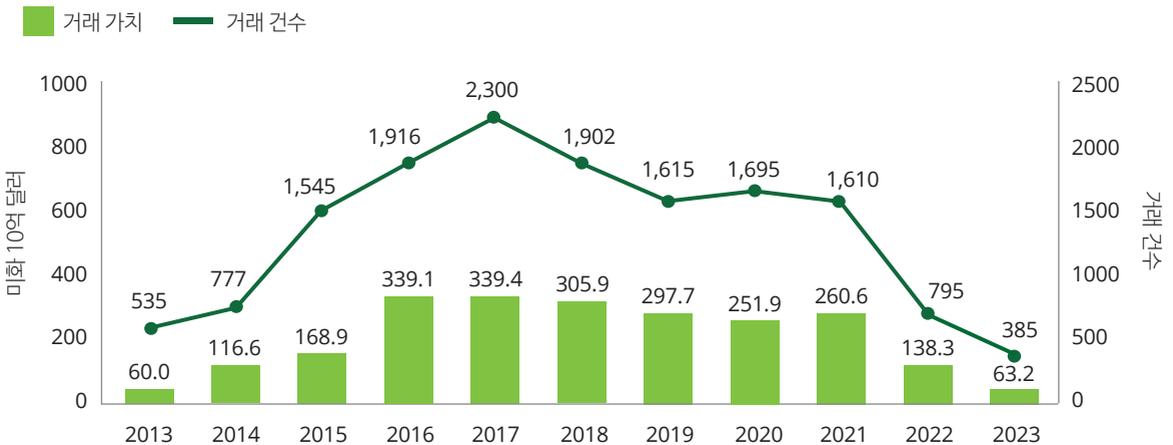


그림 11.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 조성*(2013~2023년)



출처: 프리퀀, 딜로이트 분석

- ☑ 바이아웃 PE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지난 4년간 연 평균 약 400억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206억 달러만 모금됐다.
- ☑ 펀드 조성이 저조한 가운데 대규모 펀드가 청산되고 있다. 이는 LP가 더 적은 수의 바이아웃 펀드에 자금을 집중함에 따라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2. 아태 지역 바이아웃 사모펀드 청산(미화 10억 달러), 2018~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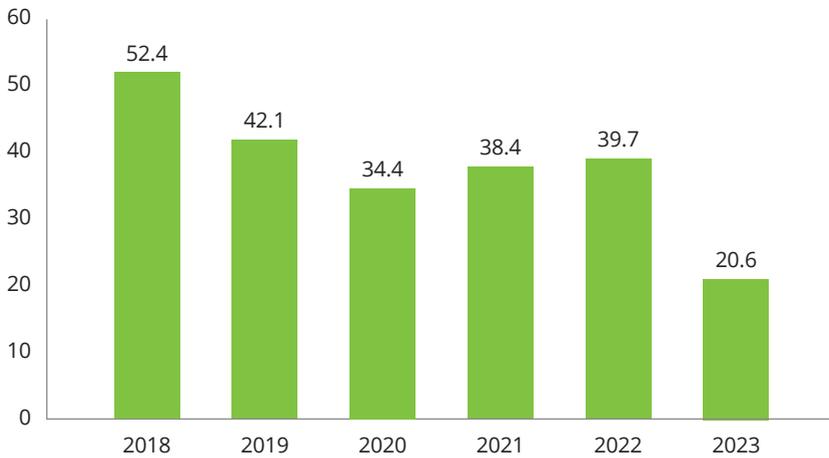


그림 13. 2023년 아태 지역 10대 청산 바이아웃 펀드

#	펀드	펀드 출시일	펀드 마감일	주요 지역 초점	거래규모(미화)
#1	베인캐피탈 아시아 V	N/A	2023년 5월	아시아	\$7.1B
#2	프리마베라 캐피탈 펀드 IV	2021년 1월	2023년 2월	중국	\$4.1B
#3	어드벤처 파트너스 펀드 VII	N/A	2023년 4월	일본	\$956M
#4	유니슨 캐피탈 파트너스 코리아 펀드 VII	N/A	2023년 7월	대한민국	\$769M
#5	캐피탈 스퀘어 파트너스 펀드 III	N/A	2023년 1월	동남아시아 및 인도	\$700M
#6	크레센트 캐피탈 파트너스 VII	2022년 2월	2023년 3월	호주 및 뉴질랜드	\$670M
#7	NSSK III	2021년 5월	2023년 10월	일본	\$667M
#8	넥서스 포인트 파트너스 II	N/A	2023년 7월	중국	\$600M
#9	노보텔러스 PE 펀드 3	N/A	2023년 12월	동남아시아	\$510M
#10	팜바 캐피탈 파트너스 펀드 III	N/A	2023년 10월	호주 및 뉴질랜드	\$407M

출처: 프리킨, 딜로이트 분석

부록

아시아 태평양 주요 지역별 상위 딜 순위

그림 14. 2023년 대한민국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SK실더스	바이아웃	+ 2023년 3월 -	EQT	SK스퀘어, 케이 스톤파트너스, 맥쿼리PE코리아, 대신PE	비즈니스 서비스	3조원
#2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아웃	+ 2023년 2월	MBK 파트너스, UCK 파트너스 코리아		의료기기	1.8조원
#3	SK온	프리 IPO	+ 2023년 1월	블랙록, MBK파트너스, 카타르투자청, 할하우스, SNB캐피탈		에너지 및 유틸리티	1조 7180억
#4	에어퍼스트	바이아웃	+ 2023년 8월 -	블랙록	IMM	에너지 및 유틸리티	1조 500억
#5	제뉴원 사이언스	비지정	- 2023년 7월	불특정 매수자	IMM	제약	1조 20억
#6	PI첨단소재	전략매각	- 2023년 6월	아케마(Arkema)	글렌우드PE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1조원
#7	루트로닉	P2P	+ 2023년 7월	한앤컴퍼니		의료기기	9,646억
#8	한국유리 공업	전략매각	- 2023년 1월	LX인터내셔널	글렌우드PE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5,904억
#9	넥스플렉스	바이아웃	+ 2023년 8월 -	MBK	스카이레이크	하드웨어	5,300억
#10	ISC	전략매각	- 2023년 7월	SKC	헬리오스 PE	하드웨어	5,225억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15. 2023년 일본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도시바	P2P	+ 2023년 9월	일본산업 파트너스		산업재	2조 엔
#2	JSR	P2P	+ 2023년 6월	JIC 캐피탈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9,040억 엔
#3	신코전기 공업	P2P	+ 2023년 12월	JIC 캐피탈 주도 컨소시엄, 다이닛폰인쇄, 미쓰이화학	후지쯔	하드웨어	6,850억 엔
#4	WHI	바이아웃, 펀드매각	+ 2023년 3월	베인, GIC	베인	소프트웨어	3,500억 엔
#5	니치이 (니치이각칸)	전략매각	- 2023년 11월	닛폰생명	베인	헬스케어	3,100억 엔
#6	아웃소싱	P2P	+ 2023년 12월	베인		헬스케어	2,210억 엔
#7	베네세 홀딩스	P2P	+ 2023년 11월	EQT		교육	2,080억 엔
#8	일본풍력 개발	전략매각	- 2023년 12월	인프로니어	베인	에너지 & 유틸리티	2,030억 엔
#9	소고메디컬	바이아웃 펀드매각	- 2023년 12월	CVC	플라리스 캐피탈	헬스케어	1,700억 엔
#10	히타치	성장	+ 2023년 10월	JIC 캐피탈		자동차	1,400억 엔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16. 2023년 중국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주하이 완다 상관	바이아웃, 재투자	+ 2023년 12월	PAG, 트러스타, 텐센트 인베스트, 앤트그룹, 선전CG VC	다렌 완다 상업 관리 그룹	인프라 & 부동산	650억 위안
#2	저장 잉더 홀딩 그룹	전략 매각	- 2023년 3월	항저우 국유 캐피탈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에어파워 테트놀로지(PAG 포트폴리오 회사)	화학, 플라스틱 및 고무	510억 위안
#3	COFCO 폴린멘	P2P	+ 2023년 8월			비즈니스 서비스	221억 위안
#4	친데이터 그룹	성장	+ 2023년 2월	CCT펀드관리, CICC, 어펄마캐피탈, 중국사회보장기금, 중국생면자산관리, CIC, 테마섹, 코스코해운, 호푸	베인	F&B	210억 위안
#5	비스트라 그룹	합병, 애드온	+ 2023년 1월	트리코 서비스(포트폴리오 회사), EQT, PSP 인베스트먼트	베인	금융 서비스	168억 위안
#6	맥도날드 중국 및 홍콩 매장	전략매각	- 2023년 11월	맥도날드, 칼라일		숙박 & 레저	126억 위안
#7	홀리시스 오토메이션	P2P	+ 2023년 12월	어센던트 캐피탈 파트너스		소프트웨어	116억 위안
#8	그라셀 바이오테크	전략매각	- 2023년 12월	아스트라제네카	6 디멘전캐피탈, 쑤저우 민잉캐피탈, 야누스 헨더슨, 오비메드 어드바이저스, 테마섹, 웰링턴 매니지먼트, 기타	바이오테크	70억 위안
#9	항저우 실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PIPE	+ 2023년 11월	구오타이 주난, 쇼우강 펀드, 시노아이 캐피탈, MSPE, 중국인수에셋 매니지먼트, UBS, 기타	폴라리스 캐피탈	하드웨어	50억 위안
#10	ZJLD	IPO	- 2023년 4월	KKR		소비재	53억 홍콩달러 (48억 위안)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17. 2023년 중국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에너지 익젠펙플라	바이아웃	+ - 2023년 10월	비스타에쿼티 파트너스, 블랙스톤	리버사이드	소프트웨어	16억 호주달러
#2	짐머만웨어	바이아웃	- 2023년 8월	어드벤처 인터내셔널	스마일 캐피탈	소매(내구재+ 비내구재)/도매	14.4억 호주 달러
#3	오스트레일 리언베뉴	바이아웃	+ - 2023년 8월	PAG	KKR	숙박 및 레저	14억 호주달러
#4	벳파트너스	바이아웃	+ 2023년 10월	EQT	NVA	비즈니스 서 비스	14억 호주달러
#5	푸시페이	P2P	+ - 2023년 5월	BGH 캐피탈, 식스스트리트그룹	TA 어소시에이 트, 닛코자산관 리, 액시던트컴펜 세이션, ANZ	소프트웨어	13.7억 키위 달러 (12.8억 호주 달러)
#6	아우센코	바이아웃	- kmw	브라이트스타 캐피탈 파 트너스, 엘드리지 인더 스트리, 클라우어 그룹	리소스캐피탈 먼트	비즈니스 서 비스	9억 호주 달러
#7	에스티아 헬스	P2P	+ 2023년 8월	베인		헬스케어	8.38억 호주 달러
#8	젠드웬 호주	바이아웃	- 2023년 4월	플래티넘이쿼티	젤드웬 (JELD-WEN)	소비재	6.88억 호주 달러
#9	호난 보험	전략매각	+ 2023년 8월	마쉬 앤 맥레넌	TA 어소시에 이츠	금융서비스	6.58억 호주 달러
#10	니트로 소프트웨어	P2P	- 2023년 4월	포텐시아 주도 컨소시 엄 L캐피탈 및 하비베스 트 포함		소프트웨어	5.5억 호주 달러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18. 2023년 남아시아 상위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쉐어칸	LP직투	+ 2023년 12월	미래에셋증권	BNP 파리바, 휴먼벨류디벨로 퍼즈	금융서비스	2290억 INR
#2	매니팔헬스	바이아웃	- 2023년 4월	TPG, 테마섹	TPG, NIIF	헬스케어	1638억 INR
#3	암그린 암모니아	LP직투	+ 2023년 10월	페트로나스벤처, GIC		에너지저장 및 배터리	1452억 INR (미화 17.5억 달러)
#4	CMS 인포시스템	LP직투	+ 2023년 8월	PSP투자, 아디트야, 비를 라선라이프, 골드만삭스, MIT, ADIA, ICICI푸 르덴셜 에셋 매니지먼트	EQT	금융 서비스	1072억 INR
#5	HDFC 크레딤라		+ 2023년 6월	EQT주도 컨소시움	HDFV	금융 서비스	906억 INR
#6	릴라이언스 리테일	LP직투	- 2023년 8월	카타르투자청	릴라이언스인더 스트리	소매업	1828억 INR
#7	Cotorge	블록거래	+ 2023년 8월		EQT	아웃소싱	804억 INR
#8	케릴라 의과대학 연구소	거래매각	- 2023년 10월	퀄리티케어 인도(블랙 스톤의 포트폴리오 회사)	트루노스	헬스케어	664억 INR (미화 8억 달러)
#9	퀄리티케어 인도	바이아웃	+ 2023년 5월	블랙스톤	에버케어헬스 펀드(TPG 관리)	헬스케어	581억 INR (미화 7억 달러)
#10	맨카인 드파마	블록거래	- 2023년 12월	포텐시아 주도 컨소시 움 L캐피탈 및 하비베스트 포함	캐피탈그룹, 크리스캐피탈	제약	559억 INR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19. 2023년 동남아시아 상위 10대 PE 투자 및 투자회수 현황

+ 투자 - 투자회수

#	대상 회사	거래유형	거래일	투자자	판매자	기초산업	거래규모
#1	랭지시메 다비 헬스케어	애드온	+ 2023년 11월	컬럼비아 아시아 병원(테마섹 및 TPG 포트폴리오)		헬스케어	미화 1,524 만 달러 (69억 MYR)
#2	싱텔(지역 데이터) (지분20%)	성장	+ 2023년 12월	KKR	싱가포르통신	인프라&부동산	미화 8.7억 달러 (11억 SG\$)
#3	QuEST 글로벌 서비스		+ 2023년 8월	칼라일	베인, 어드벤처 인터내셔널	소프트웨어	미화 6억 달러
#4	MFS 테크놀로지 싱가포르	전략매각	- 2023년 7월	빅토리 자이언트 테크놀로지	DCP캐피탈	하드웨어	US \$441M (6억 SG\$)
#5	FV병원	전략매각	- 2023년 7월	툼슨 메디컬 그룹	쿼드리아캐피탈, 노이버거 버먼, DEG	헬스케어	US \$328.5M
#6	마산그룹	성장	+ 2023년 12월	베인		운송 및 물류	US \$250M
#7	메디컬시티	바이아웃	+ 2023년 10월	CVC	롬바르드	헬스케어	US \$228M (12.7B PHP)
#8	프리마야 병원	LP직투	+ 2023년 3월	GIC	PT 세햇 아바디 세메르랑, PT 아왈 브라더스 시 크라 바탐	헬스케어	US \$197M (IDR2.95T)
#9	챌린저 테크놀로지	P2P	+ 2023년 5월	다이몬 아시아		하드웨어	US \$176M (SG \$240M)
#10	PT Samator	PIPE	+ 2023년 3월	CVC		에너지 및 유틸리티	US \$155M

출처: 딜로이트 분석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사모펀드 팀

Deloitte Asia Pacific Private Equity Team

Contact



남상욱 파트너

재무자문본부 딜(Deal) 부문장

Tel: 02 6676 1537

Email: sangnam@deloitte.com

사모펀드 공동 리더



Dwight Hooper

Head of Asia Pacific
Private Equity Business

Tel: +852 6293 7650

Email: dwhooper@deloitte.com.hk



Satoshi Sekine

Email: satoshi1.sekine@tohmatu.co.jp

사모펀드 딜 소싱 및 연감 편집팀 리더



Sam Padgett

Tel: +852 6293 7650

Email: spadgett@deloitte.com.hk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본부 리더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연구원
김사현 Director
sahe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주리 Consultant
joori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